열린 대학교육체제로서의 학부제

김 영 섭 | 한동대학교 교무처장

Ⅰ. 전환기의 사회환경과 치열한 대학교육 현실

1. 청년실업 40만 시대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2004년 1/4분기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청년들의 고용 전망이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나타났다. 일반 실업율의 2배에 해당하는 7~8%대의 청년실업자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실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실 속에서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의 역할재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5년 이후 대학이 늘어나고,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졸 인력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의 방향조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고 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시장지향성 및 경쟁을 고려하여 각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2. 지방대의 위기 시대

2003년 대학입시부터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신입생의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학간 치열한 생존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전현상'이 지속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지방대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전체 대학생 정원의 65.9%를 차지하는 지방대들의 학생 부족은 대학 경영난과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져 대학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대학들이 고사(枯死)위기에 처하면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쳐왔다. 특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채 규모와 경쟁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설치해 운영해온 지방대에서는 지역내 대학간의 '연합대학체제' 구성 또는 인수합병(M&A)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러므로 각 지방대는 경쟁력 있는 특성화된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각 대학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지방화 시대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주도하는 교육개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이 처한 지금의 사회현실 속에서 지난 10여 년간 교육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학부제의 성과에 대해 되돌아보고 학부제의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1996년부터 전면적인 학부제를 실시한 7개 대학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여러 차례 선정된 한동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학부제 중심의 교육개혁

1. 학부제를 통한 교육개혁

1) 학부제 도입 배경과 시행

20세기 후반부터 몰아닥친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은 대학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 주었다. 대학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다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이러한 요구는 고전적인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상을 고집해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였으며 경직화되고 세분화된 학과중심의 대학 구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학부제는 이전의 학과체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학문의 다양화를 수용함으로써 고도의 복잡 다양해진 지식정보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적합한 교육제도로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교육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1995년 3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학부제의 전면적 실시를 촉구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이루어 나갔다. 2001년 '학부제의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강남대 윤신일 총장에 따르면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학부제는 공학계열은 전체대학의 73.34%, 자연계열은 69.17%, 사회계열은63.70%, 인문계열은 46.09%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학을 포함하면 공학계열은 전체의 93.14%, 이학계열은 90.83%, 사회계열은 85.47%, 인문계열은 74.22%가 시행할 정도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에도 고려대가 유사학과 통합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서울대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기초 중심으로 넓게 가르치는 '학부대학체제' 도입을 통해 학부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동국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학부체제에서 학과체제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외부적으로는 학부단위로의 전환이 계속 되고 있고, 정착되어 가는 현실이지만 학부제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운영결과에 대한 명암이 있기에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부제라는 교육체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폐쇄성과 배타성을 거부하고,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대학의 체질개선을 위한 창의적 변화와 지속적인 개혁적 도전을 주어왔던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변화에 따르

는 대가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 보완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학부제가 각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 개혁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한동대의 특성화된 학부제 운영의 특징 및 지원제도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명도 매우 짧아 대학의 교육은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방법과 체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한동대는 21세기 국제화, 지식, 정보화시대에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단순히 전문지식의 탁월함만을 갖는 인재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함께 진실되고 정직하며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인성을 갖춘 인재이다. 한동대의 전문지식 교육은 정보 지식화 시대와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한 특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전공의 기초 연결 고리인 영어, 전산을 중점 교육하고 있으며, 인접 학문의 연계를 통한 복합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부제를 개교 초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였으나 정부주도에 따르는 형식적인 교육제도 도입이 아니라 실무형 인재를 양성이라는 대학 교육목적에 맞게 적용한 제도이였기에 지속적인 추진력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 실무형 인재는 자신의 위치에서 발생하거나 부여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낼 줄 아는 인재를 의미한다. 과거 단순 모방조립의 시대의 실무형 인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노하우를 잘 아는 숙련자로서의 개념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을 획득하고 응용하며, 평생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이를 지원할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과거와 같이 작업의 숙련도 고양을 통한 생산성향상에서 창의적인 지식의 응용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21세기에 현장의 유능한 실무자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한동대는 수요자 중심 교육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해 전공 선택권 부여를 위한 무전공 무학과 입학 제도의 실시와 학부제의 실시의 두 가지 강력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교육개혁의 흐름과 발맞추어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부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① 모집단위 구분폐지('96년 시행)
- 모집단위의 구분이 없는 무전공 무학과 입학
- 입학 후 자유로운 학부 선택기회 제공

② 자유로운 전공 선택 허용('96년 시행)
- 입학 후 개인이 적성 파악 기회 부여
- 전공 선택시 정원 및 성적제한 없음
- 계열간 교차 선택 허용

③ 복수/연계전공제도 시행('95년 시행)
- 인접전공학과를 통합한 학부제 실시
-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연계전공 지원

④ 자유로운 전과 허용('95년 시행)
- 전공 선택 후 전과 허용
- 전공간 및 계열간 전과 허용

> 현재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다전공 복합교육 체계로서
> 인접 학문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를 찾고 나아가서
> 두 분야의 공간에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 분야를 창출해 내는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는 학부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 전과시 정원 및 성적제한 없음
- 전과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계절학기, 개별연구)

⑤ 무전공 무학과 입학 후의 학사 운영 합리화('95년 시행)
- 담임교수/팀제도를 통한 학사지도
- 예비학부제 운영을 통한 전공의 특성 소개
- 전공선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모든 전공분야에 대한 개론과목 개설

⑥ 학부 선택 후 전공운영 합리화('95년 시행)
- 최소전공이수학점제 시행
- 전공필수과목 축소 조정
- 학부내의 통합교과목 개발
- 학부내 전공간 공통과목 개설
- 교과과정 흐름도 제공을 통한 전공설계권 지원

3) 한동대 학부제 운영의 원칙

학부제의 운영은 기존 학과제에서 실시하던 교육과정 체제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은 각 전공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있어, 학생들의 진로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전공의 세분화가 가져오는 비효율성과 학생의 사회 적응력의 쇠퇴로 이어진다. 이런 교육체제는 대량 생산과 분업화된 산업화 시대에 맞거나,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구조에서는 이와 같이 세분화된 전공의 영역보다는 몇 개의 전공 영역이 복합적으로 발전한다. 이에 부합하는 다전공 복합교육 체계인 학부제는 단지 두 개의 전공이 물리적으로 합치기만 한다면 단일 전공의 심화도 얻을 수 없고 두 전공의 장점도 살릴 수 없게 되며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를 찾고 나아가서 두 분야의 공간에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분야를 창출해 내는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는 학부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두 개의 전공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두 분야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이룩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사회의 수요와 동향을 파악하여 교과과정에 반영시켜 강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교육이 아니라 산업과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동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학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원칙을 세웠다. 학교/학부

차원에서 많은 회의와 연구 그리고 포럼, 워크숍 등의 과정으로 초안을 만든 다음, 전체 교수 및 학생들의 피드백을 거쳐 교과과정위원회, 학부장회의, 교무회의 등의 심의 및 의결기관을 거쳐 최종 총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동대의 원칙들을 소개한다.

① 학교의 교육 철학에 부합한 학부 운영

모든 학부는 비록 교육하는 분야가 다르지만 학교의 교육 철학과 비전, 목표에 일치하는 학부의 운영 방침을 정한다. 이는 학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② 학부 이원화

학부를 기초학부와 전공학부로 크게 이원화하여 실행한다. 기초학부는 무전공 무학과 입학제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이 자동으로 소속되는 교양 및 실무 영어, 전산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학부이며, 2학년 과정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학부에 소속된다. 기초학부는 전공기초에 해당하는 과목과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전공선택의 자유

무전공 무학과 입학제로 실시하는 정시모집이나, 인문계, 자연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수시모집에서도 교차지원을 허용하며, 일단 학부를 선택한 뒤에도 지도교수와 상담 후 다시 전공을 바꿀 수도 있다.

④ 학부정원 제한 폐지

학부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부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복수 전공

모든 학부는 밀접히 연관된 두 가지의 전공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산부전공제도를 실시해 이공, 자연계 학생들은 필수로, 인문, 사회계 학생들은 실무전산으로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⑥ 졸업 학점 최소화

학생들이 4년 내에 복수전공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을 교육부가 지정한 최소학점 140학점으로 실시한다. 교양 및 기초 과목 44학점 이상, 전공과목 33학점(복수전공포함 총 66학점) 이상, 총 14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연계 전공

학생이 원하면, 자신이 선택한 학부의 두 전공 중 하나만 선택하고 다른 학부의 연관된 전공을 선택하는 연계 전공을 허용한다. 현재, 인문, 사회계열 학부는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공계 및 자연계는 일부 개방한 상태이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⑧ 영어 강의 과목 설정

세계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영어권에 살던 해외 교포 자녀들을 위한 영어 강의 전공으로 GM(Global Management), IT(Information Technology), UIL(US and International Legal Studies) 과정을 실시하고, 이 전공을 택한 학생들은 이공, 자연, 인문, 사회 계열에 상관없이 한 학부의 전공을 선택하여 복수전공을 실시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원칙들을 고수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주 개최되는 학부회의에서 자체 해결하며, 필요한 경우 학부장회의에서 논

의하여 해결을 찾는다. 위의 대원칙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이나 대학원 등의 외부적인 요인들이 발생하거나, 학교의 예산 및 정책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회의와 토론을 거쳐 수시로 탄력 있고 개방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 한동대 학부제의 성과

1) 학부제 운영의 문제점 극복

지난 10년간 학부제는 미완의 제도로서 많은 실험의 대상이 되었고 변화의 몸짓에 몸살을 앓기도 하였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기학과 편중 지원으로 전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과학 붕괴 그리고 인문학 위기, 학과 서열화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공 교수 이기주의의 심화와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로 대학 공동체가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대와 성균관대 등은 학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학사운영의 효율화, 학제간 연구와 공동연구의 활성화로 학문의 경쟁력 강화, 학과와 전공영역간의 폐쇄성 탈피, 전공선택의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수요충족, 취업기회 확대, 국제경쟁력강화의 순기능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학부제 운영원칙에 따른 한동대의 학부제는 타 대학에서 지적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학부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인식되는 문제에 대한 한동대의 해결책과 대응을 소개한다.

① 인기전공에 편중지원 현상

새로 신설되는 학부의 경우 초기에 다소 인원이 적지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학부차원의 설명회를 통한 홍보와 비전제시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입학 후 첫 2학기 동안은 기초학부에 소속되어 자신의 적성과 비전에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있고, 또 전공기초과목들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전공을 선정하는데 매우 신중해 질 수가 있다. 선배와 담임 지도교수의 상담 역시 인기 전공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최근에는 인기전공의 학생 편중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동대 학생이 전공 및 학부를 선택하고 변경하는데 조건이나 제약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편중 현상이 심화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② 교수 및 학부간의 전공이기주의 심화

학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회의와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학부 교육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되며, 학부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무위원와 때론 총장이 직접 참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학제간의 연구와 학제간의 팀 강의를 개발하여, 학문을 통해서 학부간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바람직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③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와 학생지도 곤란

30여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팀 담임제도를 통해 대학공동체에 대한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벽이 없는 교수와 학생간의 사제관계를 통해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술동아리 활동으로 전공 관심자 간의 자발적인 학문적 관심과 유대도 깊어지고 있다.

④ 전공교육의 부실화 문제

〈표 1〉 한동대 졸업생 취업 및 진학율

졸업연도	1기 졸업생 (1999년)	2기 졸업생 (2000년)	3기 졸업생 (2001년)	4기 졸업생 (2002년)	5기 졸업생 (2003년)	6기 졸업생 (2004년)
취업율	93.7%	81.6%	75.4%	69.8%	70.6%	70.3%

〈표 2〉 한동대 입학생 성적분포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수능평균	149.7	142.2	262.5	313.9	350.4	360.4	380.8	330.8	339.5	337.57
수능만점	20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백분율평균	7.4%	5.5%	8.4%	10.6%	6.3%	5.8%	5.4%	-	-	-

단일 전공을 골자로 하는 학부제와 기존의 학과제에 비해 한 전공에 심화된 교육이 약화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두 전공 사이의 공통 통합 과정을 도출하여 두 전공의 기초와 함께 두 전공 사이의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학부과정에 필요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서 전공 부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전공심화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별 전공연구제와 특별세미나나 학술동아리 활성화, 연구소 활동 등을 통해 깊이 있는 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개의 전공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자발적인 심화전공 과정을 지도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업 동기유발을 시도하고 있다.

⑤ 학부의 행정업무 과다

학부제가 자리잡기까지 많은 연구와 회의로 인해 시간과 인력의 부족은 분명히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교수들의 교육열과 학생들과의 밀접한 인간관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학부제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교수확보 및 행정조교, 학생조교의 확충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⑥ 학부제의 근본 취지의 약화의 문제

타대학에 비해 비교적 학부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문제사항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단지, 두 개의 복수전공이 한 단위로 되어 있는 학부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부의 전공과 연계하는 방안을 병행하면서 해결하여 주고 있고,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들에게는 영어 강의로 진행하는 GM, IT, UIL 등을 교육과정을 열어주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0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3%의 학생들이 복수전공에 대한 만족과 지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2) 높은 취업률과 우수학생 지원

학부제와 복수전공으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한 결과 매년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의 경우 주로 서울대, 포항공대, KAIST 등 우수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2004년 2월 졸업생 540명 중 100여 명이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청년실업과 지방대 위기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

특성화된 한동대 교육제도가 알려지면서 3.27대 1의 평균 입시경쟁률 속에서 매년 전국 상위 5~7%의 우수 학생이 몰려오고 있다. 입학생 중 4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으로 타 지방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전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53개국에서 총 532명의 해외고교 출신자 및 외국인 학생이 유학을 오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3. 학부제 개선을 통한 대학특성화

1) 한동대 학부제 운영의 문제점

특성화된 한동대 전공교육과정으로 통합모델의 학부제 속에서 효과적으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 복수전공의무제이다. 학부 안에서 또는 타학부의 전공과정과 연계하여,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복수전공의무제는, 다양한 인접한 학문을 공부하여, 폭넓은 지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10여 년간의 학부제의 운영 결과, 같은 학부 안에서 병행될 수 없는 상이한 전공이 병행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동대의 학부제가 세분화된 학과들을 유사한 학과끼리 묶은 학과라기보다는 산업현장이나 학문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인접분야를 묶은 학부제이기 때문이다. 학부제를 시도한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10여 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의 변화된 수요와 요구와 함께, 몇 개의 인접학문의 통합불가능성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부제는 대학원에서 심화된 전공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도입 · 시행되어 온 것인데, 대학원으로의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부나 전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복수전공제 유연성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단수나 주전공/부전공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전공이나 학부의 사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공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각 전공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검토되고 있다.

2) 한동대 학부제 개선방안

한동대는 학부제를 비롯한 교과과정의 체계적인 개편을 위해 2002년부터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는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총체적인 교과과정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구성과와 제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다음은 연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제안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① 다양성과 유연성이 강화된 복수전공제도 개편

세계 흐름의 변화에 발맞춘 실무형 인재교육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춤과 동시에 통합형 전문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공의무제에서 다양한 전공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교육과정의 개편에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기존의 복수전공의무제를 바꾸어 복수전공(33+33)이 원칙이 되지만 전공과 부전공(33+21)을 이수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 학부의 최대 학과목 개설

학점 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학부사정상 두 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제공할 수 없는 학부가 있을 경우 등의 사정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된 수요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부 특성에 따라 심화전공과정(45+33)을 허용하여 전공과정의 부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체계적인 복합, 연계전공과정 개설

인접학문 또는 유사학문의 기초와 공통요소를 바탕으로 한 연계전공으로서의 한동대 학부제는 명확한 사회의 수요와 학생 수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과와 이과를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계 전공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경영 시대에 맞는 경영학과 전산학전공, 사이버 문화 시대에 필요한 언론학과 전산학전공, 국제비지니스 시대에 요구되는 국제학과 경영학전공 등 각 학부의 세부전공을 서로 연결하는 전공설계권을 학생에게 부여하여 다원화된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물리적인 결합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계전공의 적합도와 전공과정으로서의 면밀한 검증과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전공간 면밀히 시험운영과 검증을 위해 다양한 Interdisciplinary Program을 도입하여 두 개의 상이한 전공간 물리적 결합에서 제3의 새로운 전공으로서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연영상+마케팅+기독교문화 전공과정의 화학적 결합이 기독교문화기획 전공이라는 새로운 전공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수전공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학부제에서 학부내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수요가 큰 분야에 대한 특성화된 제2단계 발전 사업으로 동북아 지역통합 전문가과정, 재무금융 전문가과정, 기계 및 전자회로기술 전문가과정 등을 열어 학부 내부의 시너지를 강화 시키고 있다.

서로 다른 학부들 간의 전공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교수진을 새로 짜고 새로운 전공으로 세울 수 있는 연계 전공 주임교수를 세워 체계화 해야 한다. 현재 연계전공의 제2단계 발전사업으로 학부간 역량을 통합하여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형 산업에 기여할 복합적 전공능력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해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Smart Mobile Computing 디자인 전문가 과정 등이 각 학부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학부간 협력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③ 학 · 석사 통합과정 개설

학부제와 병행하여 전문대학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학부제의 근본 취지를 효율적으로 살리며 학문적, 교육적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도 전문대학원 체제가 의학, 법학, 경영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제와 전문대학원제 연계 그리고 학 · 석사 통합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고급인력 양성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대학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 · 석사 통합과정은 하나의 교육 중심 대학이 구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로서 연구되고 있다. 현재 대학교육은 4학년의 경우 석사 1학년의 상당 부분이 중복 교육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간적인 낭비 요소가 있다. 이러한 중복 교육

부분을 제거하고 심화된 전공과정의 연결교육을 통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통합과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통합 과정을 거친 인재가 사회의 현장에 들어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한 연구중심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 할 수 있다면 현재의 교육 중심과 연구중심대학의 특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Win-Win 전략이 될 것이다.

Ⅲ. 결 론

지난 10년간 한동대의 교육 개혁은 지방소재 신설대학으로서 교육시장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특성화 과정 속에 이루어졌다. 학부제를 통해 기존의 많은 대형대학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동대가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의 특징인 창의적인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학부제는 한동대의 특성화와 교육개혁의 씨앗이요, 열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전략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시대적인 교육개혁의 흐름과 함께한 한동대의 학부제는 하나의 성공모델로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급변하는 세계환경과 대학의 다양성만큼 모든 대학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획일화된 학부제로서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지식의 효용성을 가늠한다면, 교육개혁의 흐름을 주도하는 학부제를 각 대학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얼마나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제도나 방법 보다도 각 대학의 비전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대학 공동체의 전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집중과 선택만이 어려운 현실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이루어진 각 대학의 학부제 적용 노력은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잠재역량, 대학 구성원간의 역할과 함께 미래의 도약과 비전을 성취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각 대학은 학부제의 내실화 및 정상화를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와 세계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배출의 산실로서 열린 대학교육체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한동대(2003). 교과과정개편을 위하나 제언 : 학술진흥재단지원 연구과제.

한동대(2003). 교과과정개편을 위한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한동대(2003).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실무인재양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대학 학부제와 교육과정 운영과정 워크샵.

한동대(1998). 개교부터 교육개혁을 실천하는 대학.

김영섭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Tennessee주립대에서 석사, Alabama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GIS학회 학술담당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저로 "An IHS Color Model and its Application", "The application of agglomerative clustering in image classification systems", "API Development for National GIS S/W Project", "GIS 연구의 증진을 위한 CyberSpace의 설계" 등이 있다.